

깨어있을 이유

골로새서 4:2-6

김요셉 목사님

서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따진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한다.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한다.

(1) 우리 마음속에 안 되는 것으로 꼭 차 있는 것이다. 안 되는 각인으로 꼭 차 있다.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다.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라. 전도 될 것이다. 부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 램넛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3천 제자, 3백 지교회, 나는 확신 가지고 있다.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다.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한다. 왜 공부가 안 되나?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2)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다 바꾸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영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슌4:6). 딤후4:5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공부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나는 체험하고 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 가정도 학업도 되어진다.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도 변화된다. 여러분이 체험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안 되어지는 것을 바뀌어야 한다.

(3) 그래서 되어지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다.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머물러 있으니 안 되는 것이다. 진짜 말씀 안에 있으면 되어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램넛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라.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말해라. 헛갈리게 말하면 안 된다. "너는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빨리 찾고 바꾸면, 바꾸는 만큼 응답이 올 것이다.

1.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세 가지 이유

(1)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가? 전도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인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무엇을 보든지 전도로, 선교로 보이게 되어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전부 놓친다. 있어도 볼 수 없게 된다. 쉽다 어렵다 이전에 문이 안 보인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문이 보인다. 그럴 때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2)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3)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전부 썩어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썩어 있는가? 개인에게는 창세기 3장, 가정에는 창세기 6장이 와서 완전히 멸망이 와 있다. 후대에게는 창세기 11장의 문화가 뿌리내려 있다. 그 썩어있는 문화 속에 소금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찾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모든 사건, 현장, 만남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열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전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다.

2. 전도란 무엇인가?

(1)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안 그랬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흑암의 삶,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삶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2)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육신적인 간증,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다.

(3)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마13:23에,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박히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는 것이다. 요 15:5에, 붙어있지만 하면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4)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고후5:20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간청한다고 했다.

3. 복음의 내용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창1:2을 모른다. 흑암, 공허, 혼돈이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망해가고 있다. 창3:5을 모른다. 자범죄는 전부 회개하는데 원죄는 쫓겨 있다. 잘 했나 못했나 다 이야기 하면서 원죄 이야기는 안 한다. 창4:4-5, 헛된 헌신을 이야기한다. 창 6:4-5, 이런 것들이 우리 램넛과 모든 현장에 뿌리내려져 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고 끝이다. 아무 것도 모른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한다.

(1)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롬3:23,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2)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다. 하나님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3) 히9:27,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4) 롬5:8,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5) 엡2:8-9, 우리의 의와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가 복음공동체다.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6) 요1:12,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7) 계3:20,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모든 사람이 지옥의 권세에 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접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한다.

4. 이 복음을 가지면, 복음 받을 자를 도와줄 수 있다.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속고 넘어진다.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어야 한다. 사단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교회는 가도 구원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한다. 교회 와도 절대 은혜받지 못하게 한다.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받고 헌신해야 하는데, 와도 은혜를 못 받는다.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같이 생각한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하는데, 절대 은혜를 못 받는다. 더 중요한 것, 전도 못하게 한다. 이 사단의 전략 네 가지를 항상 보면서 램넛트를 도와야 한다. 이것을 못 보면 램넛트는 여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1)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엡2:1). 이것이 중생이다(요3:3). 요3:6-7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다. 이것이 중생이다.

(2)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벰2:2-3에,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다.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한다. 그래서 계속 말씀만 전해야 한다. 또 가고 또 들려주고, 또 반복해야 한다. 어린이부는 계속 복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성장한다. 다락방 찾아가서 전해주고, 계속 말씀 전해야 한다. 현장 가면 다른 별 말 할 게 없다. 계속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다.

(1) 기도다.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해 줘라.
(2) 일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 40명 모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 보다 많다. 많이 모아라. 현장에 파고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 나는 사람, 복음과 램넛트에 한이 있는 사람은 전부 모으라고 했다. 당회에 가서 장로님 중에 교사 할 사람 모으라고 했다. 갈 곳은 많은데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교사를 해라.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 램넛트 살려야 한다. 학교마다 캠프가 일어나야 하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친구가 나오고 흑암이 꺾인다. 그런데 학교를 가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언약이 분명한데, 기도제목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느님 마느냐 기도가 아니고, 예 하고 어떻게 섬길까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다. 교역자들이 진짜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순종하고 감당할 것인가를 보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이다. 그게 천명을 받은 것이다. 오는데 발로 차고, 오는데 맞냐 틀리냐 하고 있으니. (웃음) 시키면 바로 시작해야 응답이 온다. 이제부터, 모든 교역자의 이야기에 아멘 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를 시작하라.

(3) 모든 구역, 모든 직분자들, 말씀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전부 말씀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현장에는 정말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내년에는 불신자 아빠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복음 전하려고 한다. 3년째 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웃음) 유치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내년에 모든 어린이부 가정복음화 선포하고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오지 말라 해도 간다. (웃음) 왜 그러냐, 뭘 하려고 하면 이 불신자 아빠들이 놀러 간다. 주일날 뭐 하자 하면 놀러간다. (웃음) 안 열어주면 문 잡고 기도하고 올 것이다. 구역식구들 말씀운동 할 때 빠지지 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

결론

깨어있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하겠는가?

(1) 예배로 깨어있어야 한다.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전부 넘쳐야 한다. 예배 안 오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예배 오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 안 온다. 빨리 이유를 찾아야 한다. 예배 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중직자들은 예배 때 되면 전부 내려놓고 와야 한다. 30분 전에 준비하고 와야 한다. 위인들이 다 그랬지 않나. 우리도 본받으면 회복될 것 아닌가.

(2) 기도 중심이어야 한다. 진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눈에 티 안 난다. 나는 새벽기도 체질 되는 것에 3년 걸렸다. 티 안 난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누구를 통해서 살리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직자, 부모님들이 기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한다.

(3) 전도다. 깨어있을 방법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전도지고 선교지다. 나의 모든 만남,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의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다. 교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다. 나는 학교 가면 쫓겨나는데, 선생님은 수십 명 데리고 있다.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전부 전도지다. 모든 만남이 전도지다.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완전히 깨어있기를 축원한다.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진다. 이 말씀이 한주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한다.